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1호 [루계 제23243호] 주제99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파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새로 건설된 옥류
관 료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
치국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며 내각부총리인 강석
주동지,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이며 당중앙위원회 비
서들이 김양건 동지, 박
도춘 동지, 최룡해 동지,
태종수 동지, 김평해 동
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식당건설에 동원된 군
부대지휘관들과 옥류관
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
였다.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은 인민들
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개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
우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옥류관 료리
전문식당이 우리 나라
의 료리발전에서 원종
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에서 조선민족료리
는 물론 자라, 연어,
철갑상어, 매추리, 왕
개구리료리를 비롯한
각종 료리들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에서 민족료리와 세계
적으로 이름난 료리들
을 잘 만들어 봉사하면
옥류관을 더욱 흥
성거리게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바로 여기서
명료리들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히 꾸려진 료리전
문식당이 은을 내게
하자면 료리사들의 기
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떨구지 말고 충분히
보장해주며 식당의 위
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설비관리에도 깊은 관

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
간부들과 함께 옥류관 종업원들이 준비한
평양라면을 맛보시고 평양라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의 모든 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높은
부무정신을 지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을 벌려 봉사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
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평양시민들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온갖 헌신과 심혈을 다 바쳐가고
개시며 선군시대 음식문화의 새 혁신
를 펼쳐주신 어버이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
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
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50년의
오랜 역사 가지고 있는 옥류관이
평양만 뿐 아니라 료리도 잘하는것으로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리전문식당을 건설할것을 직접 말기
하시고 그 뒤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
리 실현 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애국적
현신성을 발휘함으로써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연간 축면적이 6,000여 m²에
달하고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료리전문식당이 훌륭히 건설된 결과
옥류관지구가 특색있는 조선식민족건
축물을 들어 찬 자랑할만한 하나의
급양봉사자리로 전변되었다.

인민들의 티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최상급의 료리전문식당이 일떠
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
고 투쟁하는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
을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적 고전미와
현대미가 결합되고 우아함과 정교함이
잘 조화된 웅장화려한 료리전문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당의 건축형식
과 내용은 물론 주방설비와 식사실의
비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
이 발휘하여 식당을 새 세기의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료리
전문식당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봉

사기자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좋
은 일을 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
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
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료리전문식당을
반년사이에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놀라
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성
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
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기에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실체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
강반에 조선의 결작으로 솟아나 오랜
세월 그 이름을 멀치고있는 인민봉사
의 전당인 옥류관에 최상급의 료리전문
식당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인민의 옥
류관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세계급지의 식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된데 대해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전국도처에
서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구
서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구

쳐오르고 조국의 만년재부가 끊임없이
늘어나 드리여 우리 인민이 고생풀에
락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온갖 시
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이겨낸 영웅
적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있기에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실체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
현되어있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
중한 유산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며 숭고한 도덕
의 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
민의 봉사전당인 옥류관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
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
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에서 살

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
간부들과 함께 옥류관 종업원들이 준비한
평양라면을 맛보시고 평양라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의 모든 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높은
부무정신을 지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을 벌려 봉사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
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평양시민들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온갖 헌신과 심혈을 다 바쳐가고
개시며 선군시대 음식문화의 새 혁신
를 펼쳐주신 어버이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
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
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동지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신이 따뜻하고 진심어린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종친선이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보다 새롭고 높은 단계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루할것을 충실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여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총비서

김

정

주제99 (2010)년 10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파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
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
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만경대구역인민병원, 흥남비료공장병원
의료일군들은 선군혁명의 기수이며 주력군
인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짜고들어
군인들이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서 위
흔을 세우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인민군대를 뜯는것을 공민의 응당한 본분
으로 여기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
기술대학 연구사 리영팡, 청단고치생산사업
소로동자 서철민, 청단군 구월협동동장 등
장원 박창현, 영산협동농장 농장원 윤평일은
군력강화에 이바지 할 좋은 일을 찾이하였다.

철도성 역사업국 사령원 홍명철은 여려해
동안 특류영예군인의 생활을 친절hood의 심정
으로 보살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
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

고 지난 20년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로동
제금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
침으로써 강철전사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선봉
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희천발전
소건설에서 일대 전공전을 벌릴때 대한 당
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은 실적으로 받들
이가고있는 라진음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펼치고있는 6·18전선들
격대원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이였다.

평안남도검찰소 부원 윤동국, 평안남도
품질감독처 감독원 리재림은 온갖 혁신과 함께
돌격대원들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신의주
화학섬유공장로동자 김정희, 신의주아동
백화점로동자 백옥실, 청진시 수남구역종
합식당로동자 신광호, 해주시 육체동 4·8
인민반박영애, 웅진군 웅진로동자구 3·8
인민반우경원도 지원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키티나는 강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군사적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에 모든것을 바쳐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정치보도반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한 긍지안고 가을걷이를 전투적으로

태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들끓는 포전에서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긍지안고 뜻깊은 음해 농사결속을 위한 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는 한드레벌안의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날에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가을걷이를 지닌 해보나 늦게 시작하였지만 강냉이가을걷이를 절적으로 끝내고 벼가을걷이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이 성과는 가을걷이 전투작전과 지휘를 잘하고 있는 태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창조적일본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대신을 면밀하게 하고 읊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을성 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가을걷이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높아진 대중의 열의로 하여 가을걷이 실적은 험난 오르고 있었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계획한 날까지 벼가을을 끝낼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벼만운반과 날알털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길수는 없겠는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그는 방도를 찾기 위해 은홍협동농장에 들어갔다.

벼가을과 동가리치기를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쳐들고 높았다. 뜻깊은 물을 품은 포전에서 찾아낸 이방도는 모두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즉시 은홍협동농장의 경험이 온 군에 일반화되었다.

그 곳에서는 좋았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날알털기를 막으면서도 날알털기실적을 높여나갔던 것이다.

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불리한 일기조건에 맞게 운반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 것도 경험적이다.

어느 날 폐하협동농장에 나갔던 경영위원회 일군은

큰 덕을 뜻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그 결과로 농장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올해에는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강냉이가을걸이가 늘어져 벼가을을 이시기와 겹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가을걸이와 날알털기를 빼려 끌어내면서 운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그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방도를 찾아온 일군들은 우선 운반수단의 적재능력을 높이는 한편 뜨락포트련결차들에 자동부팅장치를 받아들이도록 조작사업을 하였다. 그러하여 뜨락포트련결차들에 자동부팅장치를 받아들이는 사업은 짧은 기간에 끝났다.

일군들은 포전도로수리에 도

맞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론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운반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짜고든 것이다.

그 사업은 좋았다. 모든 협동농장들이 날알털기실적을 높여나갔던 것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군적으로 눈이 제일 많고 덩치

리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덥다. 흐르는 땅을 쟁으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으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으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으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으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려는

의지가 비끼흐른다. 한양, 학교, 이사이라도 허설제자 드라프트로 재학에 명석을 품풀히

깔고 벼단을 심는 김명길,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들의 깐깐 일 솜씨는 불수록 미

덥다. 흐르는 땅을 쟁이며 그들의 미더운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일군의 얼굴에 만족

되는 청년들의 구리빛 얼굴에 혁신

서
사
시

암록강

2천리

암록강 암록강
두 나라 기슭을 쳐서며
천년을 만년을 흘려 흘렀어도
함께 나를 기쁨이 없고
함께 나를 우정도 없었던
국경의 강아!

언제부터 너의 흐름
형제의 사랑으로 깊고 깊고
우의의 정으로 맑고 맑은
뜨거운 마음의 강이 되었더니
조종 두 나라 인민의
가를수 없는 친선의 대하가 되었더니

1

10월의 해빛 부서지는 암록강
속삭이듯 흘러가는 은물결금물결
에보다 정다운 기슭은 다시 없는 듯
이편에서 저편으로
새우리 지저귀며 날은다

어이 알리
새들이야 어이 알리
이 해빛, 이 고요, 저 아름다운
물결이
피로 물들고 포성에 울면
준엄한 나날이 있었음을

물어보자 암록강아 60년전 10월
이 땅이 겪는 시련을 함께 헤치려
너를 건너 조선전선으로 달려나온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얼마였고
이 나라 강토에 청춘을 물은
렬사들은 또 얼마였느냐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해라
인민의 새 조선을 없애려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미제
15개 추종군과 군대를 끌어들여
조선침략에 이어 중국을 침략하려
남월 때
중국인민이 높이 든
《황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

잊지 못해라 그 거치아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일먼저 총을
메워
조선전선으로 떠나보낸 모택동주석
귀중한 아들딸들을 떠밀어 보내준
증회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귀기울이면 너의 물소리에서
지금도 들려오리
이 강변 이 기슭에서 울려퍼져
씨우는 고지마다 메아리처럼
《중국인민지원군》과 노래소리
그들이 삼장으로 다지던
지원군선서의 구절구절이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군과 용감한
전투기 품을 따라배우며
조선인민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며
조선의 산파를 한포기의 물
한그루의 나무도 사랑하고 보호하며
조선인민군과 군계 단결하여
미제 국주의 침략군대를
완전히 절제히 격멸소탕할것이다

물어보라 전쟁을 겪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 선서를 지켜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물어보라 행복한 새 세대들에게
지원군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면 누구나 부르리
모안영의 이름
황계평의 이름
얼음구멍에 빠진 조선아이를 구원한
라성교역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리
전우들은 쓰러지고 흘로 남은 고
지에서
가슴에 폭죽을 암고
적의 무리속에 뛰어든
장진호반전투의 영웅 양근사를

두다리를 잃고도 기판총을 들어잡고
전진하는 폭파수를 염호한 용사
란말이 떠오른 한몸이 그대로
수류탄이 되어 장렬하게 전사한
상감령의 전투영웅 손점원을

잊지 못하더라
겹겹이 막아서는 원수의 철조망앞에서
폭발통과 운명을 같이 한 자폭영웅
혜희정

가슴으로 화구를 막은 안휘성의
두 젊은이
허가봉, 리가발!
그들의 나이는 22살, 19살 꽃
나이였음을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풍속도 서로 다른
두 나라 군대 두 나라 인민들이
공동의 원수 미제와 맞서
어떻게 나의 전우, 나의 아들딸이
되고

어떻게 우리 영웅, 우리 어머니가
되는가를
세계에 보여준 3년간의 전쟁

나도 들었어라 어린시절
로병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불사신의 영웅 구소운

그 류다른 전투당을

그가 매복한 고지에
소이란을 펴부으며 수색을 시작한
원수들을
불길속에서 웃이 태고 살이 타도
전우들을 위해 승리를 위해
단 한마디 신음소리도 없이
이 땅을 불안은채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한 병사

부모들의 이야기로 알게 된 영웅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나는
만났어라
산재로 물에 탄사한 영웅 구소운
그의 라다남은 웃자락
손바닥만한 숨외투자락앞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 만나보았다
지원군병사들과 한집안식구였던
이 나라 인민들도

적의 폭격에서 지원군부상병을
가슴으로 덮어 구원한 박제근농민
수류탄을 풀고 들어가
포위속에 든 지원군창발병을
목숨바쳐 구원한 안옥희녀성

안옥희! 그는 평양의 딸
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였다
아들보다 먼저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것은 지원군병사
그가 남긴 10살짜리 아들에를
지원군병사들은 《현대의 아들》
이라 불렀다

총총에서 찢어진
상감령의 붉은 기발과 공훈야포
불에 탄 한족의 허파
파편이 박힌 나무를 보며

우리는 조국의 고지
상감령의 높이를 알았고
준엄한 그 세월의 무게를 알았노라

황계광, 구소운의 불타던 가슴으로
귀중한 이 땅을 그려안았고
라성교의 손으로

박제근의 숨결로
가를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
그것이 조종친선임을 세겼노라

황일의 그 나날처럼
전화의 1950년대에도
공동의 원수를 치는 하나의 총대
를 암고

반제의 공동전선에서
생사를 같이 한 두 나라 인민

인민의 새 조선
인민의 새 중국을 지켜
하나의 전선이 됨

두 나라 땅에는 국경이 없었다
너의 군대, 나의 인민이 따로
없었고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었다

아, 수령의 평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힘은

현대적 무기와 장비를 갖춘

침략군대의 그 어떤 험한세력도

파악할수 있다는 승리의 법칙을

세계전쟁에 세긴 조국해방전쟁

정녕 없었더라 인류의 전쟁력사에는

령도 민족도 언어도 다른

두 나라 혁명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쌔워이긴

정의의 전쟁

제국주의 군대에 있을수 없어라

군민일치, 판형일치 그 뜨거운 땅이

정의의 전선가 있어도

부정의엔 참다운 우정도 있을수

없는 법

제국주의, 그것은 한갓 승냥이의

무리일뿐

고용병에 신념이 있다더니

강도배의 군대가 강할수 있다더니

미제 국주의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끌려나온 무리들은

개죽음을 당했어도

정의의 혁명군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자랑은승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영생

하노니

오늘도 비류강기슭에는

중국의 참된 아들이며 조선의 아들인

라성교의 추모비가 서있어라

우리 수령님 봉을 들어

한자한자 친필을 새겨 세워주신 비

—라성교역사의 국제주의정신은

조선인민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창건 40돐이 되던

스무해전 10월 우리 장군님

상감령이 바라보이는

강원도 고성군의 어느 한 학교를

황계평중학교로 부르게 하여주시고

황계평영웅관을 학교에 꾸려주셨어라

류달리도 화창한 그해 봄

우리 수령님

중국공산당의 친선의 사절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끄겁게 하시던

말씀

—미제 국주의 자들의 무력침공으로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형제적 중국인민은
인민혁명에서 방금 승리한
여려운 조건에서도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우리 인민의 투정은 피로써 도와
주었습니다

해마다 뜻깊은 명절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영웅적조선인민과 협사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협사들의 묘에
삼가 추모의 꽃송이를 드리거니

그 꽃들은 우리 장군님
10월 25일을 상징하여
1, 025개의 화강석과 대리석을
다듬어

평양의 절승, 모란봉에 개견하여 주신
우리의 탐험으로부터

회창, 윤산, 삼강령
개천, 장진호, 신안주협사묘들에
끌어들이 어려져있어라

산천의 꽃은 철따라 피고져도
장장 60년의 해와 달을 이어온
그 꽃들은 그 향기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 한번 진적 없었던 정의 향기
영원히 흐려지지 않을 천선의 향기

암록강아
오늘도 너는 추억하나
승리한 한 땅을 떠나가는
지원군병사들을 《현대의 아들》
이라 불렀다

총총에서 찢어진
상감령의 붉은 기발과 공훈야포
불에 탄 한족의 허파
파편이 박힌 나무를 보며

우리는 조국의 고지
상감령의 높이를 알았고
준엄한 그 세월의 무게를 알았노라

황계광, 구소운의 불타던 가슴으로
귀중한 이 땅을 그려안았고
라성교의 손으로

박제근의 숨결로
가를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
그것이 조종친선임을 세겼노라

황일의 그 나날처럼
전화의 1950년대에도
공동의 원수를 치는 하나의 총대
를 암고

반제의 공동전선에서
생사를 같이 한 두 나라 인민

인민의 새 조선
인민의 새 중국을 지켜
하나의 전선이 됨

두 나라 땅에는 국경이 없었다
너의 군대, 나의 인민이 따로
없었고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었다

아, 수령의 평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힘은

현대적 무기와 장비를 갖춘

침략군대의 그 어떤 험한세력도

파악할수 있다는 승리의 법칙을

세계전쟁에 세긴 조국해방전쟁

정녕 없었더라 인류의 전쟁력사에는

령도 민족도 언어도 다른

두 나라 혁명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쌔워이긴

정의의 전쟁

제국주의 군대에 있을수 없어라

군민일치, 판형일치 그 뜨거운 땅이

정의의 전선가 있어도

부정의엔 참다운 우정도 있을수

없는 법

제국주의, 그것은 한갓 승냥이의

무리일뿐

고용병에 신념이 있다더니

강도배의 군대가 강할수 있다더니

미제 국주의에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끌려나온 무리들은

개죽음을 당했어도

정의의 혁명군대, 중국인민지원군

</div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

방글라데슈, 나이제리아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 측하방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페니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칸메는, 풍랑상 달리 바루아,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웨드 칸 메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무자하를 이슬람 셀림,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국제비서 사립 마호메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현대성위원회 서기장 바흐야스탄, 문나,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앤. 앤. 알하센,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 이케구나니, 나폴리스, 선교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아흐메드 블라자라와이 4일과 10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에게 존경심을 더 깊이 말하였다.

여러 나라 정부,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축하하여 카보자인민당, 양마련 맹현대성발전당, 기내통일진보당, 영국공산당(맑스-페니주의) 중앙위원회, 이란의무성, 이슬람혁명당 무산자기구, 『로동자의길』 국제태援도협회, 군대총사령부 그리고 수리아이란사회부회부총비서, 부대통령, 아랍사회부총비서, 지역부지서와 지역지도부 조직부장, 국방상, 군대 및 무장력 풍랑포장, 토종조합총동맹 위원장, 농민총동맹 위원장, 에질트민족민주당 부위원장, 에질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수단민족대회당 까히라사무소장이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대사관에

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메히코조선친선협회와 라오스 비서,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민족세계 전보적인류의 범영파 복리를 위한 업무에 한평생을 다비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결코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서 높이 추대된 신진은 조선인민과 세계 전보적인민들에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약해주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페웠다. 그이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김정일각하게서 애말로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혁사에 전무후무한 결세의 위인이 시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그이에 대한 존경심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의 평도파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토론회장에는 남아프리카 전보적인류 연구소, 민주교원동맹, 인디아주제철학연구 위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남아프리카전보적인류연구소 조 위원장 에디에 캐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얼마전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당총동서로 높이 추대된 조선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을 충실히으로 되는 속력을 드린다.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된 신진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 풍화하시여 자주주의의 전로를 밟았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선군혁명으로 조선에 반만년민족사를 겪어온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혁명당 대외관계위원회, 선전교양위원회,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신문편집국, 그리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

당장건 65돐을 맞은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중국통신

당장건 65돐 대경축야회를 보도

10일 중국의 신화통신이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대회』가 성대히 전개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10일 저녁 조선의 수도의 거리를 네온등에 의해 새롭게 장식되었다. 평양은 명실공히 하늘을 황홀경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축포가 아름답게 터져오르고 조선로동당

용납될 수 없는 살

아프가니스탄주 미군이 『반례』의 간판밑에 파키스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시위

당장건 65돐 대경축야회는 여의지 편향들에 세차게 타오르는 혼불과 같았으며 뿐만 아니라 청탁금수는 애회에 참석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주석단 관판석에 나오시였다.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이 당장건 후 65돐동안에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에 대하여 펼쳐보였다.

광장주석단을 마주하고 있는 본사기자

인만행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4일 미군은 북부와자리스란 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또 들이밀어 미사일 공격을 가함으로써 세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날 파키스탄의 북부와자리스란 지역에서 무인기를 리용한 미군의 공습으로 9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현경되어 있다고 하면서

보기 길한 아랍-아프리카나라들을 내울 것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수뇌자회의 의에서는 아랍 및 아프리카나라들이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아랍의 무상들은 벼아랍기구의 개혁과 아랍나라들이나의 뉴데를 강화할 데 대한 아랍국가연맹 총서기의 제안에 중점을 두고 전지한론의를 하였다. 그후 리비아의 씨르트에서 진행된 아랍국가연맹 특별주최 회의에서는 아랍-아프리카나라들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워진 아랍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로 토의되었다.

최근 아랍 및 아프리카나라들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아랍국가연맹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한 호텔에 대 한 베로 공격을 규탄하였다. 사건발생 후 아랍국가연맹 총서기로 올라온 리비아는 아랍-아프리카나라들이나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경제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협조를 했다.

이번 수뇌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아랍국제관계를 강화하고 쌍무협조를 증진시키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수뇌자회의 선언에 수단의 평화정착과 팔레스티나인들의 위업 등 호상 판심으로 되는 지역 문제들에 대한 아랍-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아랍-아프리카나라들이나의 종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조선중앙통신】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장건 65돐을 맞는 우리 당과 인민을 열렬히 축하하고 조선인민과 세계 전보적인류의 범영과 복리를 위한 업무에 한평생을 다비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결코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는 남아프리카와 인디아에서 1일과 7일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을 통하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게서 애말로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작으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동지의 달이다』에 대한

민족정치 및 행정과학원 원장,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위원회 위원장, 베루토동자, 농민, 학생인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일각하게서 조선로동당에 꽂바구니와 꽂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글라데슈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평도파와 승리파로 페워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